

#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정부가 주도해야”

### 기본계획 설명회서 해조류 산업 활성화 주장 완도항·명사십리 분산 개최 등 다양한 방안 제시

완도군은 최근 장보고기념관에서 군수, 사회단체장,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본 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국가적 산업인 해조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제행사로 개최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본 계획을 발표한 ㈜플레이스랩 정순영 대표의 “국가가 나서서 추진해야 할 박람회를 완도군민들의 희생

과 노력으로 두 번이나 개최해 해조류에 대한 인식 제고, 소비 촉진과 국제해조류 시장을 선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해조류산업은 완도군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 산업인 만큼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조류박람회를 국제행사로 개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완도 항과 명사십리 분산 개최, 전시관 재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완도군은 최근 장보고기념관에서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완도군 제공

특히 2014년과 2017년 두 번의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나타난 부정적 문제는 명사십리 해변에 특설 전시관인 해양치유산업관을 설치해 관람객과 차량을 분산시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조류박람회를 완도군의 미래 핵심 산업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효율적인 행사장 운영을 위해 주 무대를 비롯해 일부 전시관을 해상 설치하는 등 전시관 설치 장소 재구성, 다양한 체험 및 해양치유프로그램을 확대해 추진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2021 국제해조류박람회는 해조류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의 연계하는 박람회로 개최해 여촌의 활력화와 어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국제 행사로 성공 개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이달 중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전남도와 공동 개최 협의, 해수부 사전검토 절차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국제 행사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완도=최규옥 기자

### 내고장 일꾼



**전동평** 영암군수는 16일 오전 11시30분 군청 남상실에서 열리는 2018 영암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16일 오전 10시 종합운동장 게이틀볼장에서 열리는 강진정자배 전국 게이틀볼대회에 참석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6일 오전 11시 신안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22회 앞테면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해남군이 최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해남군 제공

## 해남 맞춤형 복지 전국 최우수기관

### 전남 최초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운영 호평

해남군의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은 최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 포상금 3,000만원을 확보했다.

해남군은 지난 7월 실시된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회에서 특수시책사업과 민관협력 우수사례를 통해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군은 일반복지사업 7개 분야 73개 사업과 중점추진핵심사업 29개 사업 등 총 102개 사업을 민관협력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전남지역 최초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고

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를 위한 땅끝해남 희망더하기 사업을 민관 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자의 봉사 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와 365일 독거노인 안심 돌봄체계를 구축한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운영은 전국 우수사례로 파급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 관계자는 “아동, 노인, 여성, 청소년, 저소득층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시책을 개발해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 신안 교통 사각지대 해소 총력

### 군-지역택시, 새벽·야간 공영버스 운행 협약

신안군이 전남 최초로 시행한 버스공영제가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사례로 손 꼽히고 있는 가운데 교통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섰다.

15일 신안군에 따르면 박우량 군수는 민선7기 취임과 동시에 여객선 야간 운항에 따른 새벽과 야간에 공영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지역의 택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최근 도초면 화도선착장에서 ‘도초, 비금농협 차도선 야간운항’ 행사를 갖고 비금·도초 → 목포간 차도선형 여객선 야간운항을 개시했다.

도초에서 첫항차(도초 출발 06:15)와 마지막항차(도초 도착 20:15) 시간에는 공영버스가 운행하

지 않는 시간대로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 가중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군은 비금·도초 택시와 업무협약체결을 갖고 여객선 운항 시간에 맞춰 새벽과 야간에도 가고자하는 목적지까지 맞춤형 교통수단으로 택시를 제공하고 있다.

비금면은 관광버스 1대와 택시 2대가, 도초면은 택시 6대가 새벽과 야간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춰 마을별로 구역을 정해 운행에 들어갔다.

이용방법은 이용 전 미리 택시 예약 또는 콜을 하면 되고, 요금은 공영버스 요금과 동일(일반 1,000원, 65세 이상 무료) 하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부터 버스운전 기사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야간시간대에 교통이 단절됐으나 비금·도초 택시 협조로 이동



박우량 군수가 신안군 공영버스를 시승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권 보장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군은 향후 여객선 야간운항 확대 계획에 따라 탄력적 운행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도입해 24시간 국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육·해상 연계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안=이주열기자

## 기재부, 목포 방문 일자리사업 컨설팅

목포시는 최근 시청 상환실에서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고용·산업위기지역 현장 컨설팅’을 가졌다.

시는 정순주 부시장을 비롯한 일자리사업 관련 국·과장들이 참석한 일자리사업에 현안사업과 필요 예산을 설명하고 조산업 구인난 해소 및 취업활성화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 관계관들은 컨설팅 이후 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를 방문해 개발 중인 제품을 견학하고, 이번 하반기에 요청한 창업지원 제공공간 등을 둘러보고 영암으로 이동해 전남대 불산학융합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일 정부 서을

청사에서 열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조산업 구인난 해소 및 취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이번 컨설팅 이후 조속히 추진 가능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요청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 현안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부 061 - 285-9816
- 목포 010-3272-2765  
011-632-0323  
010-3635-6777
- 무안 010-3621-8989
- 신안 010-4627-1472
- 영암 010-4624-8409
- 진도 010-3624-4777
- 완도 010-5619-7020
- 해남 010-8181-2627
- 강진 010-6646-1241

## 클릭! 고향 소식



### 화순 이양면 경로위안 큰잔치 성료

화순군 이양면은 제22회 경로위안 큰잔치를 최근 이양면 복지회관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이양면 분회와 이양면변영회 주관으로 나드리 노인복지관 무지개빛의 라인댄스와 짝춤, 화순군 체육회 이양면 문화팀 라인댄스 공연으로 흥겨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오형열 변영회장은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사회의 기반을 닦아온 저력과 노후를 오래도록 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화순=서호령 기자



### 담양 출산 육아용품 나눔장터 운영

담양군이 최근 제13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다문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출산육아용품 나눔 장터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정에서 쓰지 않는 육아용품, 장난감, 의류, 신발 등 250여 점을 기증받아 운영했다.

한편 군 보건소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하는 출산 육아준비로 오는 18일부터 4주간 매주 목요일에 ‘아기사랑 부모사랑 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담양=장동원 기자



### 진도 안전한 식습관정착 캠페인

진도군은 최근 영양의 날을 기념해 식중독,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식생활 문화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씻기·익혀먹기·끓여먹기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배부를 실시했다. 또 성인병 예방을 위한 안전한 식습관을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쳤다. /진도=박병호 기자



### 강진 노인의 날·경로의 날 기념행사

강진군은 최근 국민체육센터에서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식과 경로의 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축하마당을 시작으로 어울림한마당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팍과 희생으로 오늘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일군 주역이자 우리 군의 버팀목인 어르신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면서 “100세 시대 어르신이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 및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